고문 후유증에 떠난 형…5·18 왜곡 뿌리뽑기 멈출 수 없다

우리 가족의 5·18 그리고 나의 5월

〈4〉'고3 시위대' 차종성·동생 종수씨

시민 구타하는 계엄군에 항의하다 감옥 간 형
45일만에 석방된 뒤 전남대 2년 재학 중 사망

종수씨 20년 직장생활 접고 5·18재단 입사
생존자 증언 수집 등 진상규명 활동 앞장

故 차종성씨

"5·18민주화운동을 함께 겪었던 광주 시민 모두가 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5·18의 진상이 오롯이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뿐이죠."

차종수(56) 5·18기념재단 연구소 팀장은 각종 5·18 왜곡과 폄훼 대응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생존자 증언 수집, 전두환 미화 지우기, 암매장지 발굴 등 5·18 진상규명에는 차 팀장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차 팀장의 이같은 열정에는 어린 시절 가족과 광주, 민주주의를 지키다 먼저 세상을 떠난 형의 의지가 깃들어 있다.

차 팀장은 '고3 시위대'로 불리는 고(故) 차종성씨의 동생이다. 4형제 중 셋째로 태어난 차 팀장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었고, 4살 터울의 맏형을 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자랐다.

종성씨는 금호고 3학년이었던 지난 1980년 5월 19일 계림동에 있는 이모 집을 다녀오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시내버스를 타러 무등경기장에 갔다가 계엄군이 시민을 구타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한 것이다.

"왜 사람을 때리느냐"며 항의하던 종성씨는 계엄군에게 무자비한 구타를 당했다. 계엄군은 종성씨를 '폭도'로 몰아세우며 머리에 포대를 씌운 뒤 트럭에 태워 광주교도소로 끌고 갔다.

차 팀장은 "형이 갑자기 연락이 끊기자 어머니와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형을 찾았던 기억이 난다"며 "30일이 지나서야 교도소로부터 '차종성이 수감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면회도 자유롭지 않아 어머니조차 담임교사를 대동해야만 형을 볼 수 있었다"고 떠올렸다.

종성씨는 45일 동안 갇혀 고문과 구타를 당한 뒤, 면회 온 고등학교 담임이었던 한모 교사의 증언으로 석방됐다.

한 교사가 이후 1988년에 내놓은 진술에 따르면 면회 당시 종성씨는 "먹는 것도 그대로 좋고, 하루 한 번씩 목욕도 한다. 아픈 데도 없다"며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감방으로 돌아가면서 다리를 절고, 한 팔로 허리를 짚는 등 아픈 모습을 보였다.

45일 만에 종성씨의 건강은 크게 악화됐다. 가슴이 답답하고 허리가 아파 잠을 못 이뤘지만,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 탓에 집에서 한방치료만 받으며 버텼다. 그나마도 정보과 형사들이 24시간 내내 종성씨를 감시하고 있어 편히 쉴 수도 없었다.

재수 끝에 1982년 전남대 중어중문학과에 진학한 종성씨는 단과대 학생회 간부를 맡고, 운동권인 탈춤 동아리에 들어가 집회에도 자주 참석했다. 그럴 때마다 시위 주동자로 몰려 경찰에게 심한 구타를 당했다.

1983년 2월 고문·구타 후유증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적십자병원에 입원했다. 진단 결과 갈비뼈와 척추가 비틀려 있었고, 같은 해 3월 4일 전남대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복막염으로 숨을 거뒀다.

차 팀장은 "어머니가 제일 충격이 크셨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4형제를 키우기 위해 매일 새벽 벽돌공장으로 출근해 막노동하며 돈을 벌던 와중에 큰아들을 떠나 보냈다"며 "어머니는 평생을 화병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지난해 돌아가실 때까지 형을 그리워하셨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차 팀장은 로케트전기에서 20여년 직장 생활을 하다 지난 2015년 49세 나이로 재단에 입사했다. 5·18유족회 청년부장으로서 재단 관련 업무에 도움을 줘 왔던 것을 바탕으로 5·18 재단 왜곡 대응 TF팀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지만원씨가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을 가리켜 북한군 '광수'라고 도 넘은 왜곡을 시작하던 때였다.

차 팀장은 광주는 물론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광수'로 지목된 사람들을 찾아내 '북한군 개입설'을 정면에서 반박했다. 전국 곳곳에서 열린 지씨 측의 대국민 보고회를 찾아가 동향을 파악하고, 인터넷 등에서 여과없이 퍼지는 왜곡에 일일이 대응했다.

차종수 5·18기념재단 연구소 팀장이 재단에서 진행 중인 전시물을 들어 보이며 5·18 진상규명 의지를 다지고 있다.

왜곡에 앞장선 국회의원을 항의 방문했고, 박근혜정부 시절 교과서에서 5·18 관련 내용을 줄이려는 시도에 반발해 교육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각종 5·18 관련 고소, 가처분, 재판에 참여하고 행방불명자를 찾아 암매장지 발굴 활동에도 힘을 보탰다. 전 '고백과 증언센터' 팀장으로서 광주시민들의 증언과 목소리를 듣는 것도 차 팀장 역할이었다.

차 팀장은 "왜곡 대응과 진상규명에 힘쓰면서, 오히려 제가 많은 걸 배우고 느꼈다. 마치 독버섯이 자라듯, 빠르고 무섭게 퍼지는 왜곡과 폄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가짜가 진짜가 되는 세상이 오게 된다"며 "5·18 왜곡을 완전히 뿌리 뽑는 날까지 진상규명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끝〉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일제강점기 사용 동굴 공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서구 화정동 3곳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져 유류고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지역 동굴 3곳이 오는 26일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

19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따르면 해당 동굴들은 일제강점기 때 광주 비행장이 있었던 서구 화정동에 자리잡고 있다. 〈사진〉

동굴 3곳은 각각 길이 55m, 82m, 64m, 폭 4m에 이르며 당시 비행기 유류고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복 이후 수십 년 동안 방치돼 오다 2014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동구 황금동에서 서구 화정동으로 이전하면서 일제 잔재 청산 움직임과 함께 재조명돼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2020년부터 동굴 입구에 일제강점기 잔재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섰다.

유적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동굴 콘크리트 주변 정비작업을 마쳤고 관람로에 데크를 깔아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조명과 안전 장비를 설치해 관람자가 직접 내부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에는 동굴의 자세한 역사와 강제 동원에 대한 자료 사진을 전시해 일제강점기 실상에 대해 널리 알릴 예정이다. 관람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선양과(062-221-5533)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서 야생 진드기 물림 환자 첫 발생

순천에서 지난 17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올해 처음 발생했다. 전남도는 야외활동 시 피부 노출 최소화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등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에 사는 70대 여성이 지난 13일 미열, 오한, 식욕부진 등 증세로 병원에 입원, 16일 백혈구·혈소판 감소 등의 소견으로 치료를 받다 17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증세가 호전 중이다. 이 여성은 최근 집 앞 텃밭에서 농작업을 한 후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농작업과 제초작업, 산나물 채취 등 야외활동 증가로 진드기 노출 기회가 많아지는 봄철에 발생하기 시작한다. 치명률이 높은 반면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특히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이다.

올 들어 전국 발생자는 총 8명이었다. 시도별로 제주 3명, 부산·대전·울산·강원·충북 각 1명씩이다.

연도별로 2018년 259명(전남 16명), 2019년 223명(16명), 2020년 243명(8명), 2021년 172명(9명)이 발생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 보건소 23일부터 일반 업무 재개

코로나19 유행으로 2년여 중단됐던 광주시 5개 자치구 보건소 일반 업무가 23일부터 재개된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5개 구(區) 보건소는 최근 광주시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23일부터 진료 및 제증명 업무 등 일반 업무를 재개하기로 했다. 보건소 업무가 정상화되면서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타 제증명 발급이 가능해진다.

진료·민원 업무(진료실, 한방실, 물리치료실)와 통합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금연절주영양사업, 치매환자쉼터 운영 및 치매인식 개선사업 등도 진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